

'전주대장간 여는 날' 갖고 힘찬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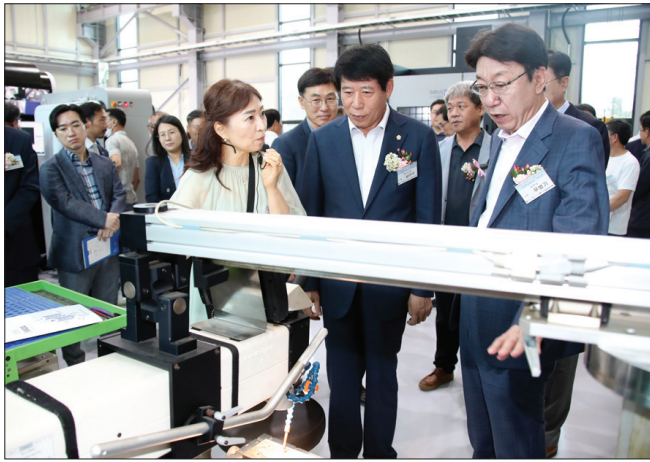
전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조성... 금속가공 소공인 경쟁력 향상·관련 산업 성장 기대

전주시가 강한 경제 전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 뿌리산업 소공인들의 성장을 도울 공동기반시설을 마련했다.

시는 23일 팔복동 산업단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송병삼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소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이하 전주대장간)'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전주대장간 여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대장간은 시가 지난 2020년 팔복동을 비롯한 인근 금속가공 소공인의 집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금속가공업 분야에 선정돼 총 36억6000만 원이 투입돼 구축됐다.

주요 시설은 금속가공 소공인들의 현장 업무능력 향상과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작업장 △장비운영실 △측정실 △소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교육장 등이다.



전주시는 23일 팔복동 산업단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송병삼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소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이하 전주대장간)'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전주대장간 여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전주대장간에는 지역 영세 금속가공 소공인들을 위한 △금속레이저 절단기 △와이어 커팅기 △머시닝

센터 △3차원 측정기 △레이저 용접기 △슈퍼드릴 등의 장비도 구축돼있다. 시는 이날 개관식을 시작으로 '전주

대장간' 시설을 활성화해 전주시의 금속가공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전·후방 산업도 함께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시는 새로운 협업 생태계 공간으로 출발한 '전주대장간'에 지역의 금속가공 소공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각종 기술 개발과 상품력 강화,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꾸준히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병삼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회 회장은 "집적지 내 공동인프라 시설이 앞으로 전주시 소공인을 비롯한 인근 금속가공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에 개관한 '전주대장간'이 지역 금속가공 소공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주시도 금속가공 산업의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며 강한 경제 전주의 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폐지 팔아 모은 수익금 기부

중앙동 거주 홍경식씨, 전주시복지재단에 100만원 전달

해마다 폐지를 수집해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해온 81세 노인이 올해도 어김없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23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따르면 전주시 중앙동에 거주하는 홍경식 씨(81세, 남)가 이날 형편이 어려운 전주시민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홍 씨는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로 5년째 폐지를 팔아 모은 돈을 기부해 왔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총 7차례에 걸쳐 기부한 금액이 800만 원에 달한다.

홍경식 씨는 "다리도, 허리도 아프지만 폐지를 계속 줌은 건 기부

할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라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생이 끝나는 날까지 사회에 보답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홍경식 어른님의 선행은 그 어떤 기부보다 값진 기부라 생각한다"면서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어른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눔에 관심 있는 많은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의 기부 참여(문의 063-281-0030)를 기다리고 있다.

/김욱기 기자

평화도서관 '지혜학교'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립 평화도서관에서 전주시민들이 삶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평화도서관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한 지혜학교 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혜학교'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평화도서관은 오는 8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전주시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신화 여행: 신화로 배우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의는 최원오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한국 신화의 정의와 특징 △태초의 시간: 이 세상의 질서는 누가 만들었는가? △수수께끼와 식물적 상상력



△지름신과 복을 주는 여신의 관계 등 한국 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평화도서관은 이번 지혜학교에 참여할 시민을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평화도서관(063-281-6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삼천2동 2동·16동·19동장 어려운 이웃 위한 물품 전달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조경순(2동), 신리순(16동), 임양례(19동) 통장은 동주민센터(동장 배경남)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50박스와 누룽지 과자 3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라면은 3명의 통장이 마련했으며,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과 다자녀, 한부모 등 5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리순 19동장은 "누군가를 위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삼천2동 행복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삼천2동 배경남 동장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통장님들께 감사하다. 전해주시 따뜻한 마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살아갈 힘과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안전성 확보 협력

전주시설공단-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 기술지원 협약... 효율적 차량 관리·점검 만전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와 손을 맞잡았다.

공단은 23일 현대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필민순)와 기술지원 협약을 맺고 효율적인 차량 관리 및 점검으로 바로온의 안전성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대차는 공단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전기차량 '카운티 EV(Electric Vehicle)'와 경유 차량 '솔라티'의 제조사다.

공단은 카운티 EV 25대, 솔라티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의 점검 및 정비 데이터를 현대차에 제공해 차량 품질 개선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전기버스 도입을 원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기버스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대차 전기버스를 홍보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공단 차량 정비직, 운전직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현대차 정비 교육과정에 공단 직원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현대자동차와 손을 맞잡았다.

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시 전기버스 관리 및 점검 교육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차량돌봄센터'를 개소하고, 정비직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자체 차량 정비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김욱기 기자

구대식 이사장은 "현대차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기버스 정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전주시민의 발로서 안전하게 전주시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도록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